

제4회 전북 농특축산물 명품 큰장터 및 2007년 충북 명품농특산품 장터 한마당 개최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하는 '전라북도 농특축산물 명품 큰장터'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11월 10일(토)부터 11월 15일(목)까지 서울 성내동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전라북도 농특축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도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으로 농가소득 보전과 식품안전성 확보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한마당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가 주최하고, 산하 14개 시·군 연합회가 주관하며, 전라북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서울지역본부가 공동 후원하여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전북 농산물의 전시부스 및 홍보·판매부스 운영, 농산물 비교전시회, 전북 쌀 브랜드 홍보행사, 농촌체험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2만원 이상의 농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용 전북농산물을 증정하는 등 넉넉하고 풍요로운 전라도 인심을 맘껏 펼쳐 보였다.

판매관과 홍보관, 기획관으로 나눠 진행되는 일정에 참여하는 농가와 업체는 판매관에는 전라북도 각 시군연합회가 출품한 우수 농산물과 각종 식품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판매하였다. 특히 해안 및 평야·산간 지대 등을 고루 갖춘 전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120여개가 넘는 다양한 상품이 선보여, 전국 으뜸농산물전시회 이후 한농연 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우수성을 서울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소비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2007년 충북 명품농특산물 장터 한마당 개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회장 박철용)는 농업명품도 충북과 우수한 농산물을 널리 홍보, 판매 합과 동시에 도시민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인 '2007년 충청북도 명품 농특산물 장터 한마당'을 11월 9일(금)부터 12일(월)까지 서울 노원구 중계2동 중계근린공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와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주최하였으며,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노원구청, 충청향우회, ATV 한국농림수산방송, 한국농어민신문이 후원하였다.

본 행사는 충청북도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도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 충북 명품농산물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고 개방화시대 안전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충북 지역에서 상경한 향우회 회원 및 서울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속에서 충북 우수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한농연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